한전, IGCC 해외수출 박차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지난달 14일 가스화공정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독일 Uhde사와 'KEPCO-Uhde Inc.'를 서울에 설립하고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KEPCO-Uhde Inc.는 한전이 지분 66%(우데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발전5사, KEPCO E&C, 한전KPS가 함께 참여한다.

KEPCO-Uhde Inc.는 우데사의 가압분류층(PRENFLO) 가스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IGCC(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SNG(합성천연가스) 분야의 엔지니어링, 라이센스, R&D 등에 대한 글로벌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KEPCO-Uhde Inc.는 점차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석탄화력 시장에서 확보한 원천기술을 이용해 청정 석탄이용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응,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남동발전, 영흥에 국내 최대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지난달 20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22MW급 국산 풍력 상용화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영흥풍력 상용화단지는 지경부가 국산풍력 신뢰도 검증 및 Trac Record(운용실적)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564억 원(정부지원 150억 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이번 사업에는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등 풍력발전기 제작업체 및 전력연구원, 에기연, 기계연구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풍력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Track Record 확보에 따라 2015년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풍력시장에 진출, 국익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영흥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30MW규모의 국산 풍력단지 추가 개발은 물론 국산풍력 제조사와 함께 미국, 동유럽 등지의 해외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국산 풍력발전기 수출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삼척화력 주기기 시공 '싹쓸이'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지난달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대건설 · GS건설 · 신텍 컨소시엄과 약 1조 원 규모의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 구매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보일러 입찰에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 포스코건설 · BHI)과 수주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하지만 입찰금액 · 설비성능 · 인도 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개월여에 걸친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17일 2000억 원 상당의 터빈발전기 구매계약을 남부발전과 맺기도 했다.

두산重, 발전서비스 분야로 사업다각화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은 기존부터 해왔던 발전소 설계 · 기자재 제작 · 건설을 넘어 출력 · 향상, 운영 · 정비 등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발전서비스 사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신규 발전소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높다.

설비 노후화와 환경규제 강화로 리모델링해야 할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미국의 발전 관련 연구소인 UDI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설비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할 발전소는 총 360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에 따라 발전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6일에는 인도 구자라트 주 아흐메다바드(Ahmedabad)시에서 인도의 대표적 민간발전회사인 TPL(Torrent Power Limited)과 사바르마티(Sabarmati) 화력발전소 리모델링 사업 계약을 600억 원에 체결했다.

현대重, 러시아에 고압차단기공장 건설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은 지난달 18일 총 400억 원을 투자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압차단기(GIS) 제조공장인 '현대일렉트로시스템(Hyundai Electrosystems)'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총 4만㎡(1만2000평) 규모로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250여대의 110~500kV급 고압차단기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까지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350대 생산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러시아 정부가 전력시스템 현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감에 따라 러시아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지에 고압차단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고압차단기(GIS)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매년 10%씩 성장해 2017년에는 약 7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 제주대에 소형 풍력발전기 기증

대한전선(대표 강희전)은 지난달 6일 제주대와 녹색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기자재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소규모 풍력발전기 기증을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교류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제주대의 현장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산업현장 실습 교육과 인턴사원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및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한전선이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AMI(양방향 원격검침인프라) 기반 제주 수요반응 실증사업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스코파워, 부생가스 발전소로 인도네시아 발전시장 진출

포스코파워(대표이사 조성식)가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소로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 첫 진출한다. 포스코파워는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인 PT.KS의 발전자회사 KDL과 지난달 14일 인니 부생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파워는 2억3100만 달러를 투자해 포스코파워 90%, KDL 10% 지분구조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파워는 조속한 현지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나서며 파견인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현지 채용인력 위주로 합작법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합작법인이 건설할 인니 부생발전소는 발전용량이 200MW(100MW 2기)로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찔레곤(Cilegon)시에 위치할 포스코 인니 일관제철소 부지 내 건설될 예정이다. 제철소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달에 착공에 들어가 2013년 말부터 전력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옴니엘피에스, '2020년까지 연매출 2020억 달성'

옴니엘피에스(구 의제전기설비연구원 · 회장 정용기)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2020 비전 선포식' 을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

옴니엘피에스가 선포한 2020년 목표는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 석권 ▲수출 규모 최소 연 1000만 달러 ▲연매출 2020억 원 이상 기록 등 세 가지이며 세계 시장 제패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차세대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세계 시장의 장점으로 △투명경영이 가능 △무궁무진한 시장 크기 △명쾌한 마케팅 전략 △매출대비 부가가치 극대화 △직장 내 복지 · 관리 시스템 세계화 △대한민국 브랜드 상승효과 등을 제시, 목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축하고 있는 KOLAS 실험설비를 완료, 해외 수출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PD 전품목의 NEP인증 ▲더블트라이앵글 공법의 전력신기술 인증 ▲철도 관련 신제품 출시 · 인증 ▲차세대 탄소접지모듈 출시 · 인증 ▲공장 이전 · 현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EA